

## 유아의 내러티브를 통한 애착표상 특성 및 유형 분석

한 지 현<sup>1)</sup>

이 진 숙<sup>2)</sup>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유아의 애착 표상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아의 내러티브 내용분석에 기반하여 군집화를 통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북 J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4-6세 유아 101명(남아 42명, 여아 59명)이다. 유아의 애착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Bretherton, Ridgeway와 Cassidy(1990)가 개발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ASCT)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코딩지침에 근거하여 내용분석 코딩 매뉴얼을 구성하고 점수화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군집은 '양육공감 집단', '자율적 집단', '격리불안 집단', '회피 집단', '저항 집단', '비조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형적인 애착 유형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 군집 간의 일치도를 비교한 결과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 유형의 일치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유아들의 애착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코딩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애착 유형 분류 방법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애착표상 특성, 내용분석, 군집화

---

1)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2) 교신저자 :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jslee0820@jbnu.ac.kr)

## I. 서 론

저출산 시대에 인재양성이 중요한 키워드로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녀 양육은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상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여러 키워드 중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애착을 꼽을 수 있다. 영아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이는 유대의 성질이라는 Bowlby(1969)의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주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건강한 성격발달을 이끌 뿐만 아니라 인지, 사회, 정서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애착유형에 따라 발달적 결과가 달라지고 전 생애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으로 유지된다는 연구결과들(Byrne, Goshin, & Joestl, 2010; Grossmann, Grossmann, & Waters, 2005)을 볼 때 어떠한 애착을 형성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기 애착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인 애착 측정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왔다. 먼저, 영아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애착행동을 보고 애착의 특성을 평가하는 낯선상황실험은 초기 양육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자료가 되었고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다(Ainsworth, 1969; Ainsworth, Bell, & Stayton, 1971;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이후 낯선상황실험이 유아기에도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실행되었다(Cassidy, 1988; Crittenden, 1985; Greenberg & Marvin, 1979; Main & Cassidy, 1988). 유아기의 애착 측정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애착 Q-set 방

법이 있는데, 가정에서 어머니와 유아가 일상적으로 가지는 상호작용을 관찰한 후 이에 근거하여 애착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Waters & Deane, 1985). 이처럼 애착에 관해서 Bowlby가 제시한 내적 실행모델에 근거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관찰에 근거한 측정 방법들 외에 유아의 발달적 변화에 적합한 평가방법이 시도되었다.

새로운 평가방법에서는 애착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Bowlby의 주장이 고려되었다. 또한 유아는 정신적인 표상을 통해 개념적으로 지식을 조작할 수 있고 내적상태에 대한 인과적 진술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표상을 통한 내적실행모델의 측정이 가능하다(Bretherton, 1992). 이에 유아와 양육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나 놀이를 통해 애착관계에 대한 유아의 표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반-투사적인 측정 도구와 분석방법들이 개발되었다(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 Emde, 1990a; 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b; Cassidy, 1988; Main, Kaplan, & Cassidy, 1985; Oppenheim & Waters, 1995; Solomon, George, & De Jong, 1995; Solough & Greenberg, 1990). Solough와 Greenberg(1990)의 격리불안검사(Separation Anxiety Test, SAT)는 부모와 격리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부모가 떠날 때 그림의 주인공이 어떻게 느끼고, 왜 그렇게 느끼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아동의 언어적 반응을 이끌어 내 유아의 애착 상태를 측정한다. MacArthur의 이야기 꾸미기 도구(MacArthur Story-Stem Battery, MSSB)는 가족관계, 갈등 및

정서적 상황들에 대한 유아의 내적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유아의 내러티브를 분석한다. 이와 유사한 Bretherton 등 (1990b)에 의해 개발된 애착이야기완성과제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ASCT)는 유아에게 애착관련 주제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유아가 가족 인형을 사용하여 반응함으로써 이야기를 마치도록 되어 있다. ASCT는 유아에게 친숙한 가족인형을 사용하고 구조화된 이야기 도입부를 제시하여 유아가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므로 취학 전 유아의 인지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age, 1998).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ASCT를 사용한 연구들(고윤희, 2001; 광영희, 2015; 김숙령, 2001; 김지현, 전예화, 2008; 박경자, 권연희, 2005; 이진숙, 2001; 한지현, 2003)을 통해 ASCT가 유아의 내적 표상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임이 입증되어왔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애착을 안정애착, 불안정(회피 또는 비조직) 애착으로 범주화하거나 유형에 기반한 점수화를 하여 평정하는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애착의 유형에 따른 구분은 각 집단 간의 특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단 내에서의 개별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 또 다른 연구들(박경자, 권연희, 2005; 채진영, 2009)에서는 애착을 점수화를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정함으로써 애착안정성을 연속체로서 취급하는 평정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정성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확인할 수 있지만 불안정 애착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이 어렵게 된다.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유형화 뿐 아니라 애착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유아의 내러티브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같은 유형 내에서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SCT와 유사한 애착표상 측정 도구인 MSSB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표상, 이야기주제, 이야기의 일관성, 감정반응으로 평정함으로써 각각의 범주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신혜원, 이영, 2005). 하지만 MSSB는 내용분석을 통한 각 범주들의 점수는 제공하지만 애착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왔던 ASCT 평정체계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유아의 애착 표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애착 유형 분류 뿐만 아니라 내용분석을 통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코딩매뉴얼을 활용하여 유아의 내러티브 내용 분석에 기반하여 군집화를 통해 분류한 애착 유형과 기존에 시도되었던 애착유형분류 간에 비교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 유아들의 애착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코딩체계를 마련하고 유아의 애착에 대한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높인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애착유형은 어떻게 분포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애착표상은 어떻게 군집화 되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애착유형과 애착군집 간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J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2곳과 유치원 1곳에 재원중인 만 4~6세 유아 101명이다. 성별은 남아가 42명(41.6%), 여아가 59명(58.4%)이며, 연령별로는 만4세가 32명(31.7%), 만5세가 54명(53.5%), 만6세가 15명(14.9%)이었다.

### 2. 연구도구

#### 애착 검사 도구

유아의 애착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Bretherton 등(1990b)이 개발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ASCT)’를 변안하여 이진숙(2001)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ASCT를 실시하기 위한 주요 도구는 작은 가족 인형으로, 처음 3개의 이야기를 위한 어머니, 아버지, 두 자녀(형제, 자매)와 나머지 2개 이야기를 위한 도우미 아주머니 인형으로 구성된다. 먼저 유아가 ASCT 도구의 실시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생일파티에 관한 위밍업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뒤, 5개의 애착 관련 주제 이야기가 소개된다. 각 이야기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애착관련 갈등이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물을 엮질렀어요’, ‘무릎을 다쳤어요’, ‘내 방에 괴물이 있어요’,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로 구성되어있다. 표준화된 실시지침에 따라 검사자가 이야기를 제시한 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주겠니?”하고 제안하면 유아가 인형가족과 소품을 사용하여 그 다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한다.

#### 애착 평정

본 연구에서 애착 표상의 평정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애착유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Bretherton 등(1990b)의 코딩지침을 근거로 수정한 Golby, Bretherton, Winn과 Page(1995)의 코딩지침과 Goodman, Andrews와 Jones(1992)의 코딩지침에 제시된 내용과 구조에 근거하여 애착 유형을 분류하였다. 애착 유형은 안정, 불안정 회피, 불안정 비조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이야기에 대한 평정을 한 뒤, 5개의 이야기 전체에 대하여 Bretherton 등(1990b)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각 사례의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다. 안정애착은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의 주제를 일관성 있고 적절하게 해결하거나, 한 두 개의 이야기에 대해서 회피나 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불안정 회피애착은 3개 이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강하게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불안정 비조직애착은 3개 이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상하고 비조직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이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안정 이야기 2개, 불안정 회피 이야기 2개, 불안정 비조직 이야기 1개)에는 미분류된 사례로 처리하였다.

둘째, 유아의 내러티브의 내용 분석에 초점을 두고 애착유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먼저 내용분석은 Golby 등(1995)의 코딩지침과 Rosenthal(1999)의 코딩지침을 근거로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긍정적 내용코드, 부정적 내용코드, 격리반

표 1. 내용분석 코딩매뉴얼

| 코드범주        | 하위요인        | 조작적 정의 및 예                                                                              |
|-------------|-------------|-----------------------------------------------------------------------------------------|
| 긍정적<br>내용코드 | 양육/공감       | 스트레스에 대해 양육적이거나 공감적인 방식으로 안정감을 주거나 편안함을 제공하는 반응<br>(예: 가족이 흘린 주스를 닦고 주스를 더 따라준다.)       |
|             | 애정          | 재결합상황에서 기쁨의 표현으로 안아주고 뽀뽀하고 따뜻하게 상호작용하는 반응<br>(예: 부모가 차에가 내려 자녀에게 뽀뽀를 한다.)               |
|             | 동료감         | 부모 외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친사회적 행동<br>(예: 아동이 부모가 가고난 후에 함께 놀거나 놀이동산에 간다.)                      |
|             | 자기신뢰        | 아동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동<br>(예: 아동이 주스를 스스로 따르고 흘린 주스를 닦는다.)                    |
| 부정적<br>내용코드 | 거절          | 아동이 도움이나 관심을 받기를 원하지만 거절당했을 경우<br>(예: 부모가 아동에게 괴물이 없다고 진정시키거나 위안을 주려는 시도를 명백하게 하지 않는다.) |
|             | 공격          | 아동이 특정 대상에게 신체적 또는 언어적인 공격적인 행동을 행하는 경우<br>(예: 아동이 형을 때린다.)                             |
|             | 괴물부정        | 괴물 장면에서 아동이 괴물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br>(예: 아동이 “괴물이 없어요”라고 한다.)                                 |
| 격리반응        | 격리불안        | 부모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행동<br>(예: 부모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거나, 부모가 간 뒤 바로 돌아오기를 원함.)             |
|             | 조용한<br>격리반응 | 분리 장면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격리반응으로 눈에 띄는 불안을 보이지 않는 행동<br>(예: 부모가 여행을 떠날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             | 긍정반응        | 재결합 장면에서 부모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br>(예: 미소 지으며 “엄마 아빠가 왔다”하고 말한다.)                         |
| 훈육과<br>처벌   | 훈육과<br>처벌   | 아동이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징계 또는 처벌을 받는 경우<br>(예: 부모가 아동에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마”하고 말한다.)                  |
| 비전형적<br>반응  | 회피          |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회피, 부정, 무시하는 반응<br>(예: “몰라요” “아무 일도 없어요”라고 반응한다.)                           |
|             | 비전형적<br>사건1 | 매우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공격적인 요소가 포함된 괴상하고 비조작적인 반응<br>(예: 괴물이 아동을 잡아먹는다. 자동차가 충돌해서 모두 죽는다.)   |
|             | 비전형적<br>사건2 | 이야기가 분절되어 일관성이 없고, 반복적이며, 맥락에서 벗어난 경우<br>(예: 엄마, 아빠가 여행에서 돌아오고 애들만 차타고 떠난다.)            |

응, 훈육과 처벌, 비전형적 반응의 5개의 범주 이야기에서 해당하는 요인에 빈도를 체크하여  
에서 각각의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각 이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평정하였다. 다음으로

점수로 평정된 내용코드를 가지고 연구대상을 유사한 특성을 토대로 그룹으로 묶는 군집화를 시도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한 코드는 최초에 22개의 코드를 고려하여 평정을 실시하였다. 그 중 각 코드별 전체 빈도가 1이하로 낮거나, 코드의 내용이 유사하여 보다 큰 상위범주로 묶일 수 있는 코드들을 조정하여 최종 14개의 코드를 구성하였다. 각 하위코드의 주요내용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애착 평정은 ASCT 실시 및 연구 경험이 있는 본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교수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각 이야기에 대한 내용 평정과 유형분류 기준에 대해 토의하고 숙지하고 난 뒤, 전사본을 각자 읽고 별도로 분석한 다음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애착 내용 평정에서는 10사례에 대해 두 평정자가 각각 평정한 점수에 대해 관찰자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r = .81 \sim .92$ 로 나타났다. 내용 평정에 대해 재논의를 한 뒤 본 연구자가 최종 평정을 실시하였다. 애착유형 분류에서는 두 명의 평정자가 각각 전체를 분류하였는데, 대부분 일치하였으며 불일치한 경우에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

### 3. 연구절차

애착검사는 훈련된 아동학 석사과정생 3명에 의해 수행되었다. 검사자들은 관련연구의 아동학 전공 교수와 박사에 의해 검사실시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 모의 검사

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받는 등의 훈련과정을 거쳤다. 검사자들은 유아 2명씩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한 번 검사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검사실시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였다.

본 검사는 해당 어린이집에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유아의 부모에게 연구동의서와 설명문을 배포한 뒤,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애착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시기는 2017년 1월부터 2월 첫 주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검사자들이 방문하여 별도의 검사실에서 애착검사를 실시하였다. 소요시간은 유아별로 약 20분정도 걸렸으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유아의 자료 일부(3명)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01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모든 연구절차는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File No. JBNU 2017-01-001-002).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유아의 애착검사는 본 연구자들이 코딩지침에 근거하여 각자 점수화와 분류를 한 뒤 토의를 거쳐 합의하에 점수화와 분류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애착유형에 따른 빈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애착 특성의 내용코드의 일반적 경향을 살피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내용코드의 유사한 특성들을 토대로 그룹을 구분하기 위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개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뒤, 추정된 군집의 개수를 기준으로 비계층적(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딩지침에 근거하여 분류한 애착유형과 군집분석을 통한 애착유형 간의 일치도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표를 제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Bretherton 등(1990b)과 Goodman 등(1992)의 코딩 매뉴얼에 따른 애착유형 분류

ASCT에서 유아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내적 표상에 근거하여 Bretherton 등(1990b)과 Goodman 등(1992)의 코딩지침을 근거로 애착 유형을 분류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안정 애착이 71.3%(72명), 불안정 회피 애착이 9%(8.9%), 불안정 비조직 애착유형이 10%(10명)이 있으며 미분류된 경우도 10%(10명)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착 유형분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Golby 등(1995)과 Rosenthal(1999)의 코딩 매뉴얼에 따른 애착유형분류

##### Golby 등(1995)과 Rosenthal(1999)의 코딩 매뉴얼에 따른 내용분석

유아의 내러티브의 내용 분석에 초점을 두고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먼저, Golby 등(1995)의 코딩지침과 Rosenthal(1999)의 코딩지침을 근거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긍정적 내용코드, 부정적 내용코드, 격리 반응, 훈육과 처벌, 비전형적 반응의 5개의 범주에 각각의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다. 22개의 내용코드 중 빈도가 낮거나 내용이 유사한 코드를 조정하여 최종 선정된 14개의 하위범주의 빈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긍정적 내용코드 중 양육/공감요인의 점수( $M = 2.28$ ,  $SD = 1.26$ )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료감( $M = .49$ ,  $SD = .56$ ), 애정( $M = .31$ ,  $SD = .51$ )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내용코드는 .05~.08로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 격리반응은 조용한 격리반응( $M = .61$ ,  $SD = .49$ )을 보이는 빈도가 격리불안( $M = .19$ ,  $SD = .40$ )을 보이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

표 2. 유아의 애착유형

( $N = 101$ )

|     | 만 4세 |    | 만 5세 |    | 만 6세 |   | 전체<br>$n(\%)$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안정  | 8    | 14 | 14   | 25 | 5    | 6 | 72(71.3)      |
| 불안정 | 회피   | 1  | 3    | 2  | 1    | 2 | 9(8.9)        |
|     | 비조직  | 1  | 2    | 3  | 3    | 0 | 10(9.9)       |
| 미분류 | 3    | 0  | 2    | 4  | 1    | 0 | 10(9.9)       |
| 전체  | 13   | 19 | 21   | 33 | 8    | 7 | 101(100.0)    |

표 3. 내러티브 내용분석 ( $N = 101$ )

| 코드범주        | 하위요인     | $M(SD)$    |
|-------------|----------|------------|
| 긍정적<br>내용코드 | 양육/공감    | 2.28(1.26) |
|             | 애정       | .31(.52)   |
|             | 동료감      | .49(.56)   |
|             | 자기신뢰     | .21(.48)   |
| 부정적<br>내용코드 | 거절       | .07(.25)   |
|             | 공격       | .08(.39)   |
|             | 괴물부정     | .05(.22)   |
|             | 격리불안     | .19(.40)   |
| 격리반응        | 조용한 격리반응 | .61(.49)   |
|             | 긍정반응     | .50(.50)   |
| 훈육과 처벌      | 훈육과 처벌   | .14(.42)   |
| 비전형적 반응     | 회피       | .68(1.36)  |
|             | 사건1      | .19(.61)   |
|             | 사건2      | .37(.99)   |

육과 처벌요인 점수는 부정적 내용코드 다음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비전형적 반응에서는 회피요인 평균이 .68이었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사건을 나타내는 사건2요인( $M = .37$ ,  $SD = .99$ )이 피상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사건1요인( $M = .19$ ,  $SD = .61$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Golby 등(1995)과 Rosenthal(1999)의 코딩 매뉴얼에 따른 군집화

다음으로, 위에서 평정된 내용코드를 토대로 연구대상을 유사한 특성으로 묶는 군집화를 시도하였다. 군집의 개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적절한 군집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 군집화 일정표

와 덴드로그램을 확인하였다. 군집화 일정표에서 계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단계를 찾아 나누어지는 군집들을 확인하고 덴드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6개의 군집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군집의 수를 6으로 정하고 비계층적(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군집의 특성 및 빈도는 표 4, 표 5 그리고 그림 1과 같다.

표 4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적 내용코드와, 부정적 내용코드, 격리반응, 비전형적 반응의 전체적 경향성을 살펴보면 긍정적 내용코드가 높은 1, 2, 3군집과 비전형적 반응이 높은 4, 5, 6군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1은 양육/공감요인이 가장 높고, 동료감과 조용한 격리반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에 ‘양육공감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군집 1은 전체의 5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59명이 해당되었다. 군집 2는 동료감이 높으며 긍정반응이 높은 반면에 부모의 거절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양육/공감적인 태도와 함께 거절 행동도 보이는 다소 비일관적인 경향이 있으나 아동이 동료감과 자기신뢰를 가지며 부모에게도 긍정반응을 보이는 비교적 기능적인 자립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자율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는 전체의 5%가 속하였다. 군집 3은 양육/공감이 높으며 동료감도 있으나 높은 격리불안을 보였다. 이에 ‘격리불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는 전체의 16.8%인 17명이 해당되었다. 군집 4는 비전형적 반응 중 회피반응이 높게 나타나 ‘회피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8.9%인

표 4. 유아애착표상의 군집

(N = 101)

| 코드범주        | 하위요인        | 군집 <i>M(SD)</i> / Scheffe 검정 |                 |                  |                |                 |                   | <i>F</i> |
|-------------|-------------|------------------------------|-----------------|------------------|----------------|-----------------|-------------------|----------|
|             |             | 1                            | 2               | 3                | 4              | 5               | 6                 |          |
| 긍정적<br>내용코드 | 양육/공감       | 2.86(.83)<br>a               | 2.40(.89)<br>ab | 2.00(1.36)<br>ab | .22(.44)<br>c  | 1.00(.89)<br>bc | 1.40(1.14)<br>abc | 16.42*** |
|             | 애정          | .38(.55)                     | .20(.44)        | .41(.61)         | .00(.00)       | .00(.00)        | .00(.00)          | 1.93     |
|             | 동료감         | .74(.51)<br>ab               | .80(.83)<br>a   | .05(.24)<br>ab   | .00(.00)<br>b  | .16(.40)<br>ab  | .00(.00)<br>b     | 11.04*** |
|             | 자기신뢰        | .22(.52)                     | .40(.54)        | .17(.39)         | .11(.33)       | .16(.40)        | .20(.44)          | .26      |
| 부정적<br>내용코드 | 거절          | .00(.00)<br>a                | 1.00(.00)<br>c  | .00(.00)<br>a    | .00(.00)<br>a  | .33(.51)<br>b   | .00(.00)<br>a     | 73.83*** |
|             | 공격          | .01(.13)<br>a                | .00(.00)<br>a   | .00(.00)<br>a    | .00(.00)<br>a  | 1.00(1.26)<br>b | .20(.44)<br>a     | 10.84*** |
|             | 괴물부정        | .00(.00)<br>a                | .00(.00)<br>a   | .00(.00)<br>a    | .00(.00)<br>a  | .83(.40)<br>b   | .00(.00)<br>a     | 89.35*** |
| 격리반응        | 격리불안        | .00(.00)<br>c                | .20(.44)<br>bc  | .94(.24)<br>a    | .00(.00)<br>c  | .16(.40)<br>bc  | .40(.54)<br>b     | 61.74*** |
|             | 조용한<br>격리반응 | .93(.25)<br>a                | .60(.54)<br>ab  | .00(.00)<br>c    | .00(.00)<br>c  | .50(.54)<br>ab  | .20(.44)<br>bc    | 43.93*** |
|             | 긍정반응        | .61(.49)                     | .80(.44)        | .47(.51)         | .11(.33)       | .00(.00)        | .40(.54)          | 3.67**   |
| 훈육과<br>처벌   | 훈육과<br>처벌   | .16(.49)                     | .20(.44)        | .05(.24)         | .00(.00)       | .16(.40)        | .20(.44)          | .41      |
| 비전형적<br>반응  | 회피          | .16(.42)<br>a                | .20(.44)<br>a   | .58(.79)<br>a    | 4.44(.88)<br>b | .83(.98)<br>a   | .60(1.34)<br>a    | 69.49*** |
|             | 사건1         | .03(.18)<br>a                | .00(.00)<br>a   | .17(.39)<br>a    | .00(.00)<br>a  | .16(.40)<br>a   | 2.60(.54)<br>b    | 91.48*** |
|             | 사건2         | .11(.37)<br>a                | .40(.54)<br>a   | .64(1.45)<br>a   | .00(.00)<br>a  | 2.16(2.13)<br>b | .80(1.30)<br>ab   | 6.92***  |

\*\*  $p < .01$ . \*\*\*  $p < .001$ .

표 5. 유아애착표상의 군집별 유아의 비율 (N = 101)

| 구분   |         | <i>n</i> (%) |
|------|---------|--------------|
| 군집 1 | 양육공감 집단 | 59(58.4)     |
| 군집 2 | 자율적 집단  | 5(5.0)       |
| 군집 3 | 격리불안 집단 | 17(16.8)     |
| 군집 4 | 회피 집단   | 9(8.9)       |
| 군집 5 | 저항 집단   | 6(5.9)       |
| 군집 6 | 비조직 집단  | 5(5.0)       |
| 전 체  |         | 101(100.0)   |

9명이 해당되었다. 군집 5는 비전형적 반응 중 이야기의 일관성이 없고 맥락에서 벗어나는 사건 2요인이 가장 높고, 거절, 공격, 괴물 부정과 같은 부정적 내용코드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에 '저항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5.9%인 6명이 해당되었다. 군집 6은 괴상하고 비조직적인 반응인 사건 1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 '비조직 집단'으로 명명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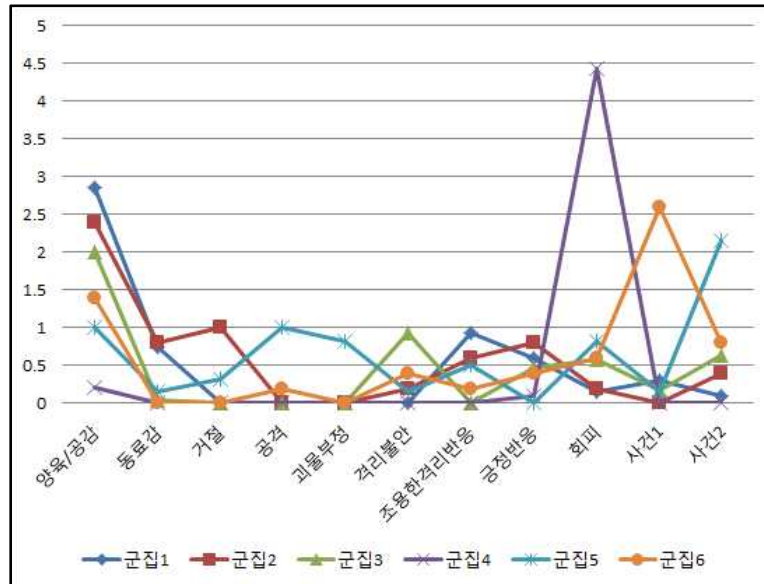


그림 1. 유아애착표상의 군집

다. 이 집단에는 전체의 5%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의 애착 유형과 애착 군집 간의 비교

앞서 분류한 Bretherton 등(1990b)과 Goodman 등(1992)의 코딩 매뉴얼에 따른 애착유형과 Golby 등(1995)과 Rosenthal(1999)의 코딩 매뉴얼에 따른 애착군집 간의 일치도를 비교하기 위한 교차표를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안정애착유형은 군집 1, 2, 3에 포함되었으며, 불안정 애착유형은 군집 4, 5, 6인 불안정 애착 군집에 속하였으며, 불안정애착유형 중 3 사례만이 군집 3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3에서 불안정 비조직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사례( $n = 3$ )들의 응답반응을 살펴본 결과 부모님과 분리되는 장면에서 격리불안을 표현하고 맥락에서 벗어나는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재결합상황에서도 보였다. 하지만 다른 장면에서는 비교적

표 6. 애착유형과 군집유형 간의 일치도

(N = 101)

|     |     | 군집 1 | 군집 2 | 군집 3 | 군집 4 | 군집 5 | 군집 6 | 전체  |
|-----|-----|------|------|------|------|------|------|-----|
| 안정  |     | 56   | 5    | 11   | 0    | 0    | 0    | 72  |
|     | 회피  | 0    | 0    | 0    | 9    | 0    | 0    | 9   |
|     | 비조직 | 0    | 0    | 3    | 0    | 3    | 4    | 10  |
| 미분류 |     | 3    | 0    | 3    | 0    | 3    | 1    | 10  |
| 전체  |     | 59   | 5    | 17   | 9    | 6    | 5    | 101 |

안정된 반응을 보여 2개의 이야기에서는 안정으로 평정된 사례였다. 앞서 살펴본 군집의 전체적인 경향성과 애착유형과의 일치도를 고려해 볼 때 1, 2, 3군집은 안정애착유형, 4, 5, 6군집은 불안정애착유형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 애착유형과 군집을 안정과 불안정으로 나누어 일치도를 살펴보면 96.7%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미분류된 사례는 군집 1, 3, 5, 6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다. 군집 1에서 미분류에 포함되었던 사례( $n = 3$ )는 ASCT의 5개 이야기에 대하여 2개는 안정 반응, 2개는 회피반응으로 분류되고 1개는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미분류로 남게 된 사례였다. 군집 3에서 미분류로 포함되었던 사례( $n = 3$ )도 살펴본 결과 군집 1에서와 같이 안정반응 2개, 회피반응 2개, 분류안됨 1개, 또는 안정반응 2개, 비조직반응 1개, 분류안됨 2개와 같이 혼합되어 있어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사례였다. 군집 5에서는 미분류로 포함되었던 3사례가 분류되었는데, 회피반응 2개, 비조직반응 2개, 분류안됨 1개와 같은 응답유형과 안정반응 2개, 회피반응 2개, 분류안됨 1개와 같은 응답유형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집 6에 포함된 미분류 사례는 회피반응 2개와 비조직반응 2개, 분류안됨 1개로 코딩된 사례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ASCT를 사용하여 측정한 유아의 내러티브를 토대로 유아의 애착표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애착유형 분류뿐만 아니라

내용분석을 통한 군집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유형은 안정 애착이 71.3%(72명), 불안정 회피 애착이 9%(8.9%), 불안정 비조직 애착유형이 10%(10명)이었으며 미분류된 경우도 10%(10명)로 나타났다. ASCT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정애착 비율이 Bretherton 등(1990a)의 연구에서는 66%, 이진숙(2001)의 연구에서는 56.4%, 김지현과 전예화(2008)의 연구에서는 66.3%, 강인설과 박희경(2012)의 연구에서는 안정애착 비율이 54.3%, 황소연과 방희정(2012)의 연구에서는 69.9%, 심미경(2013)의 연구에서는 62%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 유아의 안정애착 비율이 다소 높은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대상은 맞벌이 부모가 많은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전업주부 비율이 높은 유치원이 연구대상이었으며 부모들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다소 안정애착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각 연구마다 대상유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선별과정에 따라 애착유형의 분포가 다소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미분류된 경우가 10%로 나타났는데, Bretherton 등(1990b)과 Goodman 등(1992)의 코딩지침에 근거한 유형 분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5개 이야기에 대하여 2개는 안정 반응, 2개는 회피반응으로 분류되고 1개는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미분류로 남게 되거나 회피반응 2개, 비조직반응 2개, 안정반응 1개와 같은 응답유형으로 하나의 유형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유형

을 결정하게 되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애착 집단의 성향에 오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미분류로 남겨 두었으며 다음에서 제시된 군집화 분석에서 이들 미분류 사례가 어떠한 집단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유아의 내러티브의 내용 분석을 위해 긍정적 내용코드, 부정적 내용코드, 격리반응, 혼욕과 처벌, 비전형적 반응의 5개의 범주의 14개 하위요인을 구성하여 점수화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적 내용코드 중 양육/공감요인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료감, 애정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내용과 혼욕/처벌요인은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격리반응은 조용한 격리반응을 보이는 빈도가 격리불안을 보이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적 반응에서는 회피요인이 가장 높고, 앞뒤가 맞지 않는 사건을 나타내는 사건2요인이 괴상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사건1요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Rosenthal(1999)의 연구에서는 내용주제, 갈등해결, 정서반응, 애착안정성, 혼욕표상의 5개 범주의 12개 하위요인으로 평정하였는데 범주의 구분이 상이하여 정밀한 비교는 어렵지만, 내용주제 중에서는 양육/애정요인이 다른 요인들(부정적인 기괴함, 거절, 신체적 공격성)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부모와의 격리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으로는 분리불안을 보이지 않는 유아가 분리불안을 보이는 유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유아들의 연령이 만 4-6세로 만2세가 넘으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분리불안 증상이 줄어드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내용코드를 토대로 연구대상을 유사한 특성으로 묶는 군집화를 시도하여 6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군집의 전체적인 경향성과 애착유형과의 일치도를 고려해볼 때 1, 2, 3군집은 안정애착유형, 4, 5, 6군집은 불안정애착유형으로 간주해볼 수 있다. 내용코드에서 안정과 불안정 애착유형을 구분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긍정적 내용코드 중 양육/공감, 동료감이었으며, 비전형적 반응의 하위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retherton 등(1990b)과 Goodman 등(1992)의 코딩 지침에 제시된 분류기준들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야기에 대해 회피나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괴상하거나 비조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불안정애착 유형으로 분류되게 된다. 또한 안정 애착유형에 있어서 스트레스에 대해 양육적이거나 공감적인 방식으로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주었다.

한편, 각 군집은 내용분석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공감 집단', '자율적 집단', '격리불안 집단', '회피 집단', '저항 집단', '비조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내에서 하위집단이 세분화됨으로써 개인차를 고려한 보다 세밀한 분류가 가능해졌는데, 이는 Ainsworth 등(1978)이 낯선상황실험에서 제안한 애착의 유형의 하위유형과 견주어 볼 수 있다. 낯선상황실험을 통해 나타난 영아의 애착 유형은 안정(B유형), 불안정-회피(A유형), 불안정-저항(C유형)으로 나뉘고 다시 8개의 애착 하위유형(A<sub>1</sub>, A<sub>2</sub>, B<sub>1</sub>, B<sub>2</sub>, B<sub>3</sub>, B<sub>4</sub>, C<sub>1</sub>, C<sub>2</sub>)으로 분류된다. Ainsworth 등(1978)에 의하면 영아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애착인물과의 상호작용형태를 다르게 만들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안정애착유형으로 볼 수 있는 세 개의 군집도 군집별로 특성을 보이는데 ‘양육공감 집단’은 전형적인 안정애착 집단(B<sub>3</sub>)으로 볼 수 있으며, ‘자율적 집단’ 집단은 회피적 성향을 지닌 안정애착 집단(B<sub>1</sub>, B<sub>2</sub>)으로, ‘격리불안 집단’은 저항적 성향을 지닌 안정애착 집단(B<sub>4</sub>)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불안정 애착 집단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회피와 비조작 애착 집단에 저항애착 집단이 구분되었는데, 불안정-저항 애착집단은 비전형적 반응 중 이야기의 일관성이 없고 맥락에서 벗어나는 사건 2요인이 가장 높고, 거절, 공격, 괴물부정과 같은 부정적 내용코드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유아가 불안상황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부모의 양육/공감적인 태도가 회피유형보다는 높으나 안정유형 보다는 낮고 거절행동을 보이는 일관되지 못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ASCT에 관한 코딩매뉴얼에는 저항애착집단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내용분석을 통해 분류가 가능함을 제안해보는 바이다.

넷째, 애착 유형과 애착 군집 간의 일치도를 비교한 결과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 유형의 일치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불안정 애착유형 중 3사례만이 안정애착 군집에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격리상황에서 불안을 보이거나 비전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른 장면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유아들에게 부모와의 격리로 인

한 불안이 덜 위협적이며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봄을 받고 공감을 받음으로써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유아의 애착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을 측정하기 위해 적절한 장면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해석 뿐 아니라 문화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한편, Bretherton 등(1990b)과 Goodman 등(1992)의 코딩 지침에 의해 분류할 때 미분류되었던 사례들이 군집화를 했을 때 안정과 불안정애착의 여러 군집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용분석을 통해 유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하는 분석방법이 질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유아의 내러티브에 근거한 애착 표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질적인 차원에서의 애착유형 분류 뿐 아니라 내용분석 점수에 의한 군집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유아들의 애착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코딩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애착 유형 분류 방법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애착유형이 안정과 불안정애착의 단편적인 분류만이 아닌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여러 애착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개별 유아의 애착 특성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유아기 애착 평가도구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하다. ASCT에 제시되어 있는 5개 이야기의 한국 타당화 검증 뿐 아니라 한국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이 보강·보완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구분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코딩체계의 타당화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인설, 박희경 (2012). 유아-부모 애착유형과 유아의 인기도의 대응분석 연구: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381-402.
- 고윤희 (2001). 4, 5, 6세 유아의 애착에 대한 내적실행모델 질적 분석.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영희 (2015). 유아의 애착과 자아개념, 사회기능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숙령 (2001). 유아의 정신적 표상에 의거한 부모와 교사에 대한 애착 측정 도구 개발과 적용. *한국유아교육학회지*, 21(3), 95-117.
- 김지현, 전예화 (2008). 유아의 애착표상과 또래 인기도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유아교육논총*, 17(2), 25-43.
- 박경자, 권연희 (2005). 나레이티브를 통한 유아의 애착 표상 측정의 타당화 연구: 애착 안정성,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4), 247-262.
- 신혜원, 이 영 (2005). 3-4세 유아의 애착 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89-110.
- 심미경 (2013).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리더십 및 사회적 조망 수용능력. *놀이치료연구*, 17(3), 41-55.
- 이진숙 (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진영 (2009). 아버지의 애착표상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표상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지현 (2003).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소연, 방희정 (2012). 유아의 애착과 기질이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3), 147-165.
- Ainsworth, M. D. 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40(4), 969-1025.
- Ainsworth, M. D. S., Bell, S. M., & Stayton, D. J. (1971). Individual difference in strange situation behavior of one-year-olds. In H. R. Schaffer (Ed.), *The origins of human social relations* (pp. 17-57). London: Academic Pres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Y: Basic Books.
- Bretherton, I.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759-775.

-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 Emde, R. (1990a).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Unpublished manual.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b).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s: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273-3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yrne, M. W., Goshin, L. S., & Joestl, S. S. (2010).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for infants raised in a prison nurser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2(4), 375-393.
- Cassidy, J. (1988). Child 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 olds. *Child Development*, 59(1), 121-134.
- Crittenden, P. M. (1985). Maltreated infants: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1) 85-96.
- Golby, B., Bretherton, I., Winn, L., & Page, T. (1995). *Coding manual for the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Goodman, G., Andrews, T., & Jones, S. (1992). *Revised administration and coding guidelines for the attachment story-completion task*. Unpublished manuscript, Columbia University, Barnard College, New York.
- Greenberg, M. T., & Marvin, R. S. (1979). Attachment patterns in profoundly deaf preschool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25(4), 265-279.
- Grossmann, K. E., Grossmann, K., & Waters, E. (2005). *Attachment from infancy to adulthood: The major longitudinal studies*. New York: Guilford Press.
-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six: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one-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415-446.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66-104.
- Oppenheim, D., & Waters, H. S. (1995). Narrative processes and attachment representations: Issues of development and assess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197-215.
- Page, T. F. (1998). *Linkages between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families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care settings (Vol. 2)*.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Rosenthal, R. J. (1999). *Young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self and parents: Are they related to experiences with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Slough, N. M., & Greenberg, M. T. (1990). Five-year-olds' representations of separation

- from parents: Responses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and other.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1990(48), 67-84.
- Solomon, J., George, C., & De Jong, A. (1995). Children classified as controlling at age six: Evidence of disorganized representational strategies and aggressions at home and at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3), 447-463.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41-65.
- 1 차원고접수 : 2017.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7. 11. 17.  
최종게재결정 : 2017. 11. 21.

##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Attachment Represented in Young Children's Narratives**

**Han, Jihyeon**

**Lee, Jin Suk**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classify types by clustering based on narrative content analys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attachment representation of young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1 children(42 boys and 59 girls) who were 4-6 years old and were attending childcare center or kindergarten in Jeonbuk J city. Attachment representations as expressed by the young children were assessed using the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ASCT), developed by Bretherton, Ridgeway and Cassidy(1990). Based on various coding guidelines, content analysis coding manuals were constructed and scored, after which a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six clusters. The clusters were given the following names: 'nurturing and sympathetic group', 'self-reliance group', 'separate anxiety group', 'avoidant group', 'resistant group', and 'disorganized group'. After comparing the typical attachment types and the attachment clusters of this study, we found relatively high agreement rates in secure attachment and insecure attachment typ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establishing a coding system that can gauge the attachment characteristics of Korean young children and in verifying the utility of this new attachment type classification method.

*Keywords: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attachment representation, narrative content analysis, clustering*